



임용고사 합격을 위한



유아임용

최종 합격

♡ 유임정 10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조○○ 수강생		수강방식	ALL 인강
응시지역	광주		병행 여부	학부 병행
공부경력	초수		등수	광주 1등
점수	1차	교육과정: 63 논술: 18.67	2차	수업실연: 29.03 수업면접: 28.80 심층면접: 38.93

좌우명	조용하게 준비해서 확실하게 도착한다.
-----	----------------------

▶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인강으로 2025년 1월부터 박수민 강사님의 연간 패키지와 2차 강의를 수강하여 2026년 광주지역에 재학생 초수로 수석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지금도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또한 처음 임용을 준비하며 방향을 잡는 것부터 쉽지 않았지만, 강의를 따라가며 하나씩 쌓아간 시간들이 공부의 중심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수험기간 동안 여러 합격 선생님들의 수기를 읽으며 많은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글들을 통해 '나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자신감과 희망을 품었고,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져 지금 합격 수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교사 경력이 없어도, 재학생이어도 충분히 임용에 합격할 수 있으니, 이 글을 읽고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람마다 공부 방법이 다르니 제 수기는 참고용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I. 시기별 공부 계획 및 방법 (유임정 강의 활용 방법)

<1~2월>

1~2월은 임용 준비의 출발선에 서는 시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무리하게 공부 시간을 늘리기보다, 장기적인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리듬을 만드는 것을 가장 중점에 두었습니다. 하루 평균 5~6시간 정도의 학습 시간을 유지하였으며 '꾸준히 하는 공부'를 목표로 두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강의 수강 1	강의 수강 2	강의 수강 3	복습	복습	전체 오답	오프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강의를 밀리지 않고 꾸준히 수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월, 화, 수요일은 해당 주차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강의에서 다룬 내용을 그 주 안에 암기까지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그동안 배운 모든 내용을 누적 복습하여 인출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백지에 외운 내용을 개요도 있게 적으며 인출하였습니다. 또한 주중에 틀린 문제들을 모아 토요일에 다시 암기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일요일은 휴식을 취했습니다. 체력과 집중력을 회복하는 시간이 이후 학습의 효율을 높여준다고 생각하였기에, 놀러도 가고 잠도 푹 자며 체력을 회복하였습니다.

<3~6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각론 강의 2	각론 강의 3	논술 강의 1	논술 강의 2	복습	복습	각론 강의 1

3~6월에는 학습량보다도 학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3월부터는 논술 강의를 시작되어 각론 강의를 올라오는 날부터 일, 월, 화요일에 각론 강의를 수강하고 수, 목요일은 논술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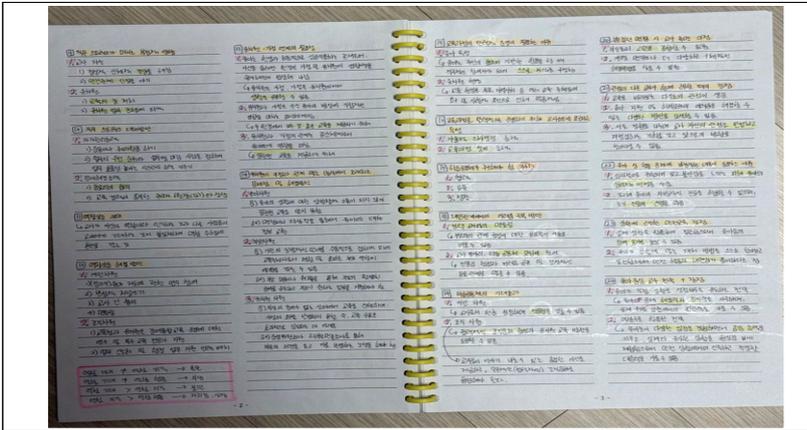
3~4월에는 학부 수업과 병행하며 임용 공부를 이어가야 했고, 논술 강의를 시작되며 심리적, 체력적으로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3월에는 '완벽하게 공부하지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 흐름 자체를 놓치지 말자'라는 마음가짐으로 공부에 임했습니다.

5월에는 실습 일정으로 인해 공부를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어중간히 공부하고 실습할 바에는 실습이라도 열심히 하자라는 생각으로 5월 한 달은 책 한번 펴지 않았습니다. 대신 5월 내내 이후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는 마인드컨트롤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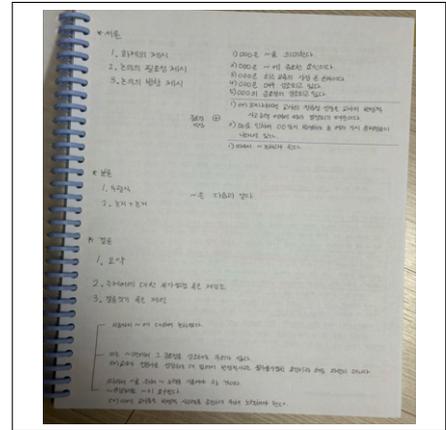
6월에는 그동안 밀렸던 각론 진도를 따라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한 주에 두 주차 분량의 강의를 소화하며 하루 평균 8~9시간 공부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공부 시간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만들어 두었던 학습 루틴 덕분에 방향을 잃지 않고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도를 나가는 데 급급하여 암기와 복습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이전 내용을 복습하며 공부하였습니다.

◆◆◆ 논술 공부 ◆◆◆

논술 공부에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논술 노트입니다. 논술 강의를 수강하며 '이 문제가 다시 출제된다면 무조건 맞힌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였습니다. 이에 논술에 나온 모든 문제의 핵심 내용들을 적어 암기했습니다. 또한 모든 문제를 풀 때 개요도를 만들어 나만의 개요도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논술 노트 1>



<논술 노트 2>

<7~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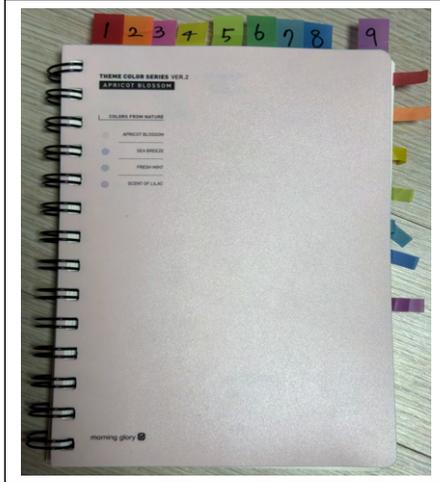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인출 및 복습	문풀 및 강의 수강	휴식				

7월과 8월에는 문제풀이반을 수강하며 본격적으로 문제풀이에 집중했습니다. 매주 문제를 풀기 전, 해당 주차의 내용을 충분히 회독하고 인출하였습니다. 인출은 눈을 감고 주차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뱉을 수 있을 때까지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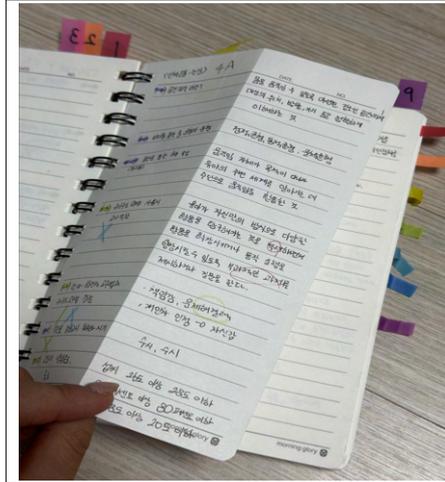
시간에 쫓기다 보면 사고의 흐름이 끊겨,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도 놓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문제를 푸는 시간을 엄격하게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푼 후에는 바로 강의를 듣지 않고 모범답안을 보며 '왜 이 답안을 떠올리지 못했는지', '나의 사고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스스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이후 강의를 들으며 내 생각과 해설의 방향을 비교하고, 차이가 난 지점을 중심으로 재정리하였습니다.

[오답 노트]

모든 오답은 오답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용지를 절반으로 접은 후 왼쪽에는 문제, 오른쪽에는 답안을 적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오답 노트는 시험 보기 전날까지 n 회독했습니다. (10회독정도 한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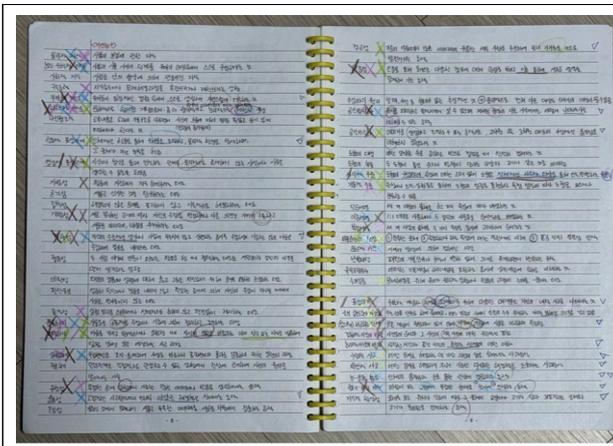
<오답 노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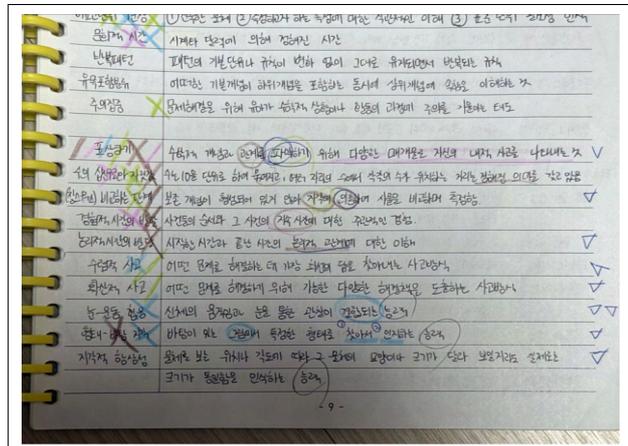
<오답 노트 2>

[정의 노트]

7월부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단어의 정의를 담은 정의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서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최신경향에 적합한 답변을 위해 정확한 정의를 외우고자 하였습니다. 매주 모든 범위의 정의를 암기하였고, 틀린 문제는 색연필로 체크해가며 헛갈리는 정의를 선별하였습니다. 시험에 다가갈수록 색연필이 많이 체크된 정의를 위주로 암기하였습니다.



<정의 노트 1>



<정의 노트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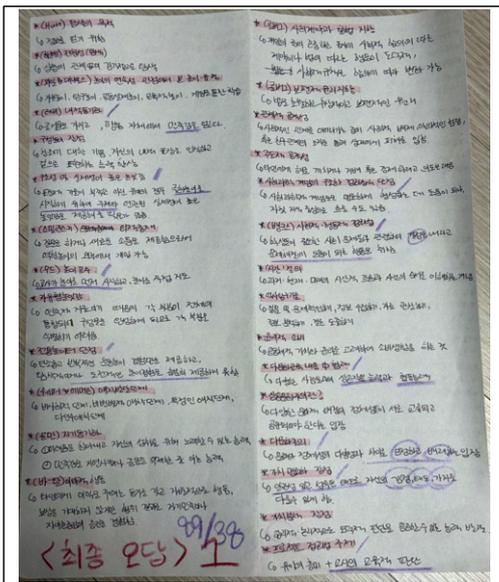
<9~10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개론 인출 1	개론 인출 2	각론 인출 1	각론 인출 2	각론 인출 3	전체복습	모의고사

9월과 10월부터는 모의고사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일요일을 모의고사 날로 정하고, 실제 시험과 동일한 시간에 맞춰 문제를 풀었습니다. 시험 당일의 긴장감과 흐름을 미리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험장을 대략적으로 구상하여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 연습했습니다.

모의고사를 풀 후에는 결과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틀린 문제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복습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생각 하나로 모의고사 점수는 채점만 하고 넘겼습니다.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는 모두 오답 노트에 정리하였고, 매주 오답 노트를 재오답하는 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개론과 각론 전 범위를 1회 인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매주 개론과 각론을 인출하니 10월에는 인출 시간이 빨라진 것을 경험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헛갈리거나 틀린 내용은 모조리 A4용지에 정리했습니다. 한 주 동안 누적된 A4 오답을 토요일에 다시 확인하며, 그 용지에 적힌 내용만 집중적으로 암기했습니다. 제가 활용한 방식은 약점을 압축해서 관리하는 방법이었는데, 이 방법이 실력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답을 잡자! 약점을 압축해서 관리하기

<시험 전 2주>

시험을 앞둔 마지막 2주 동안에는 새로운 내용을 더하지 않기로 스스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교재를 다시 꺼내어, 정말 마지막으로 본다는 마음으로 빠르게 회독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목표는 공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용 중 놓치고 있던 부분을 점검하고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독을 하며 다시 책을 펼쳐보니, 이전에는 지나쳤거나 중요도를 낮게 두었던 개념들을 재정리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부한 내용이라 이해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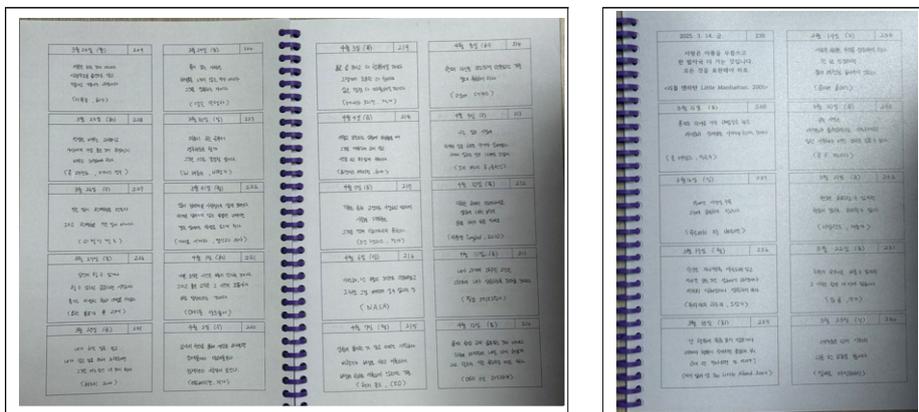
<해설이 및 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해설이	해설서	해설서	해설서	실행자료	실행자료	이해자료	전체 오답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를 편식 없이 보고 암기했습니다. 1월부터 시험 전까지 쉬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타이핑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해설서, 실행자료, 이해자료의 목차와 소목차, 핵심 문장들을 모두 암기하였습니다.						
법	법은 강의 진도에 맞춰 강사님이 주신 자료를 매일 보았고,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법관련 문제집을 구매하여 매일 풀었습니다.						

II. 이것만은 알아야 해! 10가지 TIP!

1. 명언 쓰며 하루를 시작하기

임용 준비 기간 동안 **매일 아침 명언을 손으로 적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하루의 방향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전 명언을 쓰는 습관이 장기간의 수험 생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명언 쓰며 하루 시작하기>

2. 카페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저는 박수민 강사님 카페의 '질문 있어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강의 수강 중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을 무조건 짚고 넘어가고자 하여 바로 정리해두어 질문했습니다. 또한 카페에 다른 수험생들의 질문과 답변을 읽으며 스스로 놓치고 있던 관점을 점검해보았습니다. 보통 48시간 안에 댓글을 달아주시기에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절대 밀리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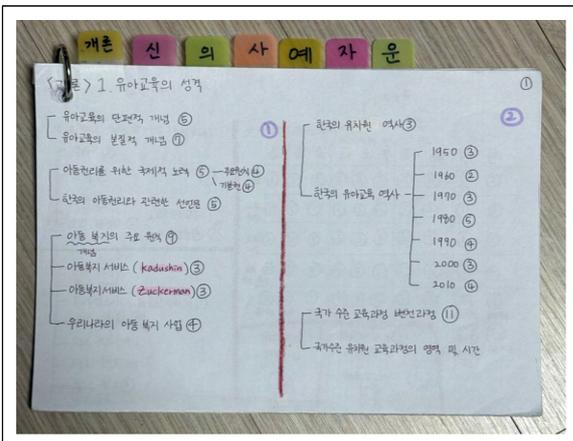
저는 합격의 이유가 밀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의 강의는 반드시 그 주 안에 모두 수강했고, 해당 주차 내용이 충분히 암기되었다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만 휴식을 취했습니다. 너무 많은 하루 계획보다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성취감을 느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4. 강의 후 무조건 복습하기

저는 강의 1강을 들은 후 30~60분가량의 암기 시간을 꼭 가져주었습니다. 강의 내용을 바로 정리하지 않으면 기억이 흐려진다고 생각했기에, 강의를 들은 후 기본서를 정독하고 바로 개요도를 만들어 암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부 방법으로 인해 강의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5. 개요도 만들기

강의를 들은 후에는 항상 나만의 개요도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구조화해서 정리하면 전체 흐름이 한눈에 들어와서 매우 도움 되었습니다. 인물이나 핵심 키워드 옆에 숫자를 적어 인출해야 하는 개수를 표시하였고,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순서를 나눠 표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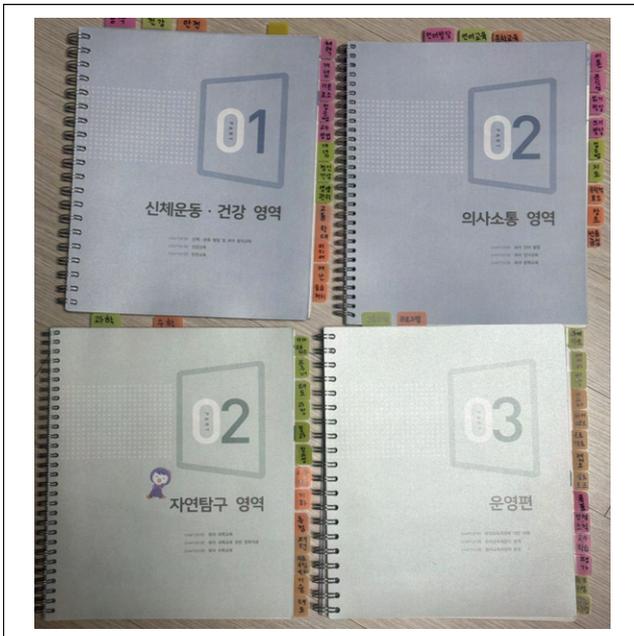
<나만의 개요도 만들기>

6. 흰색 색연필로 무한 회독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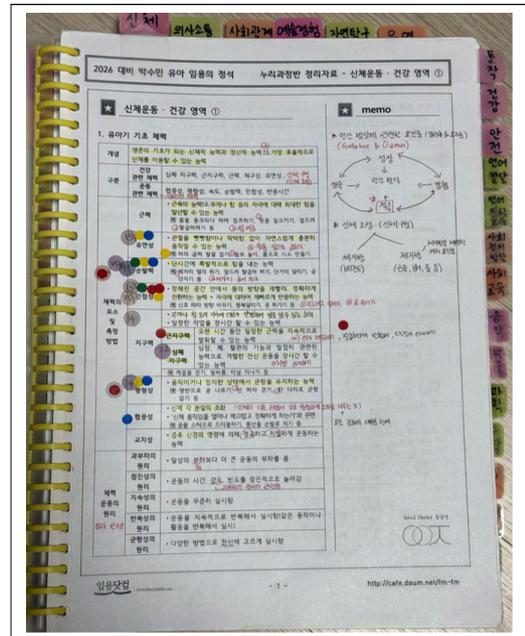
저는 책이 지저분해지는 것이 싫어 흰색 색연필을 활용해 공부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색펜으로 표시해 두면 회독할 때마다 핵심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고, 책을 여러 번 다시 보는데도 부담이 없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분이라면 흰 색연필 추천합니다!

7. 책을 분권한 후 인덱스 활용하기

교재는 과목별로 분권한 뒤, 인덱스를 활용하여 목차를 모두 표시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니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내용을 바로 찾아볼 수 있어 학습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또한 인덱스를 기준으로 내용을 반복해서 확인하면서, 머릿속에서도 개념 구조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책 분권 후 인덱스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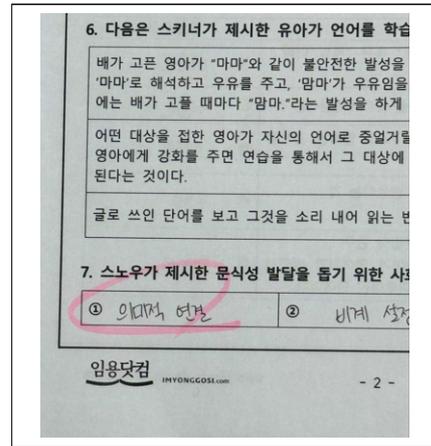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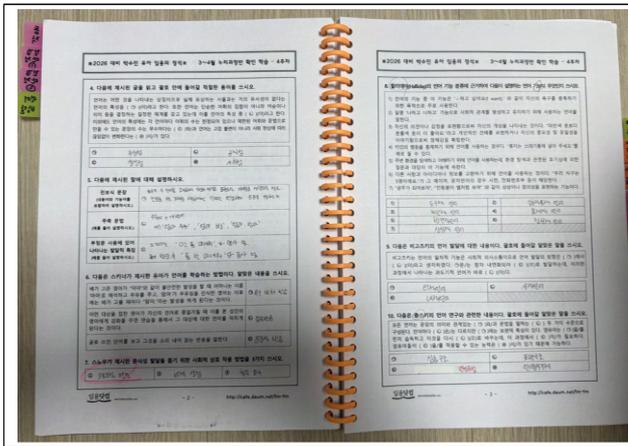
<기출 표시>

8. 기출 표시하기

그동안 출제된 기출 내용 위에 출제 연도를 직접 붙였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니 어떤 개념이 반복해서 출제되었는지, 어디가 핵심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사님 모의고사에 나왔던 부분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기출과 모의고사 문제 표시를 통해 공부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었고,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반복해서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9. 기본테스트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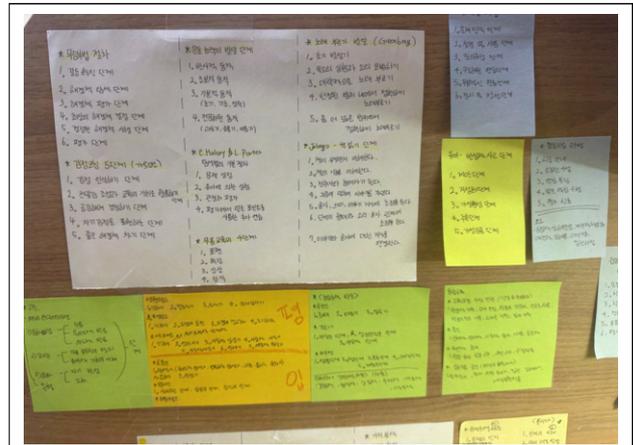
강사님이 제공해 주신 기본테스트를 매주 인쇄해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 활용했습니다. 해당 주차 내용을 충분히 암기했다고 판단된 후에 테스트를 풀며 이해도를 점검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형광펜으로 표시해 반복 확인했습니다. 기본테스트를 통해 학습 내용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에,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확인학습 테스트 적극 활용하기>

10. 바로 보이는 포스트잇 붙이기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은 포스트잇에 적어 책상 위에 항상 잘 보이도록 붙여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공부를 시작하기 전, 포스트잇에 적힌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외우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반복해서 눈에 익히는 과정을 통해 잘 외워지지 않던 개념들과 점차 정리되었고, 작은 빈틈을 메우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곳곳에 포스트잇 붙이고, 반복해서 외우기>

Ⅲ. 2차 준비 방법

<1차 결과 발표 전>

1차 시험을 마친 뒤, 7일 정도 휴식을 가지고 바로 2차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2차도 인강으로 수강하였고, 밀리지 않고 박수민 강사님의 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광주는 실연이 자체 출제이기에 1차 결과 발표 후에는 자유 놀이 위주로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 시기에 평가원 실연을 유형별로 연습했습니다!

<1차 결과 발표 후>

광주지역은 실연이 자체 출제이면서 소수의 인원을 뽑기에 복기 자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카페를 활용하여 광주지역 1차 합격 선생님들을 구했고 스터디가 꾸려졌습니다. 또한 합격한 선배들과도 스터디를 구성하여 총 2개의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면접은 약 2주 동안 모든 기출문제를 빠짐없이 한 차례씩 정리하고 풀어보며 출제 경향과 질문의 방향을 파악했습니다. 이후 강사님이 제공해 주신 연습문제도 모두 풀어보며,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구성해 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 마지막 1주일에는 기출문제를 다시 한번 돌리며 답변 감각을 익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미 준비한 내용을 반복해서 점검하며, 실제 면접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답변을 계속 점검했습니다.

면접 답변은 나만의 틀을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두괄식으로 답하고자 했으며, '주장-이유-해결방안-기대 효과'의 구조를 기준으로 답변을 구성했습니다. 이 틀을 반복해서 적용하며 연습한 덕분에, 예상하지 못한 질문 앞에서도 답변의 방향을 잃지 않고 안정적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 실연은 자유 놀이 위주로 연습하였습니다. 광주는 구상 30분, 수업 실연+수업 면접이 30분이기에 수업 실연 시간은 20분으로 맞춰서 연습했습니다. 타 지역 문제들도 '자유 놀이라면 어떻게 진행될까?'를 계속 생각해보며 광주지역 출제 경향에 맞춰 실연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브나 다른 합격생들의 수업 실연 영상을 보며 좋은 발문, 행동을 연습하고자 했습니다.

수업 면접은 정말 복기가 거의 없어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있는 수업 면접 자료를 모두 모아 경향성을 분석하였고, 스터디원들끼리 문제를 만들어 시간 맞춰 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직접 문제를 만들어본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광주 수업 실연 2차 문제 복기]

-유아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아 00으로 대체하였습니다.

1. 문제

00이랑 00이는 입으로 바람을 불어 종이컵을 미는 놀이를 하고 있다.

00이는 책으로 바람을 만들며 '내 바람이 더 쎄'라고 말한다.

세은이는 자신이 만든 종이컵 탑이 무너졌다며 발로 바닥을 쿵쿵 찬다.

2. 조건

- 2019 개정 누리과정 3개 영역 포함하시오.
- 디지털 기기 2개 이상 사용하시오.
- 감정조절이 어려운 유아를 지원하시오.
- 바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도록 지원하시오.

3. 수업 면접

- 놀이에서 반영된 2019 개정 누리과정 관련 지원 3가지 말하시오.
- 놀이 장면 중 관찰, 기록이 필요한 놀이 장면 2가지를 말하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과 유아기 디지털 역량을 2가지씩 말하시오.
- 자기 감정조절 발달을 위한 가정 연계 방안 3가지를 말하시오.

IV. 수면 및 건강 관리 방법

저는 장기간의 임용 준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만큼이나 생활 리듬과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11시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생활 패턴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수면 시간을 줄이기보다는,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리듬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식사 시간 역시 일정하게 관리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시간을 미리 정해 두고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생활했습니다. 일정한 식사 시간은 집중력과 체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피로가 누적된다고 느껴질 때마다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시기별 몸 컨디션에 따라 다양한 영양제를 복용하였고, 덕분에 감기 한번 없이 수험기간을 마무리하였습니다.

V. 스트레스 극복 방법

저는 임용 준비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를 믿으려는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불안한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머무르기보다,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을 믿고 현재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이 스트레스를 크게 키우지 않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약 한 시간 정도는 친구와 함께 산책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부에 대한 고민이나 일상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며 환기했고, 이 시간은 다시 책상 앞에 앉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혼자 모든 것을 견디려 하기보다는 적절히 털어내고 다시 돌아오는 방식을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VI. 소감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수험기간 동안 흔들리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시가 또한 임용이라는 길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불안과 고민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 과정을 지나온 지금에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임용 준비를 단순히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유아 교사가 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속에서 교사로서의 태도와 책임감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이후의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임용을 준비하는 모든 예비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고,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분명 도착하게 될 순간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 마지막으로 박수민 강사님! ◆◆◆

무엇보다 복잡하게 느껴졌던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주신 강의 덕분에 공부의 방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뿐만 아니라 강사님께서 보여주신 태도와 말 한마디 한마디가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 또한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아에게 따뜻하게 다가가는 교사로 성장해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출발점에 박수민 강사님의 가르침이 있었음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